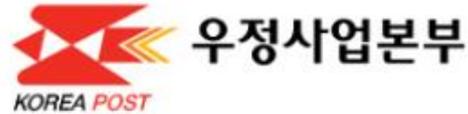




[보도자료] 바이브컴퍼니, AI 기술로 우체국 금융 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



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구.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는 바이브의 AI·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우체국 금융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.

바이브는 주관사인 SK C&C와 함께 올해 최대 공공사업으로 손꼽히는 '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' 구축 사업에 참여해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 시스템을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탈바꿈할 계획이다. 총 사업 규모는 1,815억 원이다.

이번 차세대 사업은 예금, 보험, 펀드, 자산운용, 재무 관리, 리스크 관리 등 우체국 금융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·통합하는 종합금융시스템을 구현하면서 AI·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업무 자동화, 빅데이터 활용 고객정보 통합·관리 등 스마트한 금융 업무환경 ▲모바일·현업 창구 등 디지털 중심의 옴니채널 ▲챗봇 기반 고객상담센터 등을 구축해 고객 중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
바이브는 독보적인 AI 기술 플랫폼 Sofia를 기반으로 우체국 금융의 스마트 고객센터를 구현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.

특히 바이브는 AI 기반 전문 상담에 특화된 'AI Agent' 솔루션을 통해 금융, 법률, 의료 등 전문 상담 영역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민원상담,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우체국 고객들은 창구나 모바일 구분 없이 상담 받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챗봇으로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.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의 추천, 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.



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"바이브는 자체 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술제품으로 이미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정받아온 만큼, 이번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구현하고 우체국이 고객 중심 비대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."이라고 말했다.